

건강 칼럼

간염 제대로 관리하자

간염은 피로와 감기 몸살 증상을 일으키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치명적인 간 질환으로 발전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다. 간염의 종류와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A형 간염

A형 간염은 주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나 오염된 음식, 물을 통해 감염된다. A형 간염이 최근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위생상태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록 항체 보유율이 낮아 면역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형 간염의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 몸살과 비슷하다. 주로 식욕부진, 오심, 구토,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므로 그냥 지나치기 쉽다. 따라서 초기 진단이 어려우므로, 감기 몸살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약자의 경우 방치하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 할지라도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A형 간염은 항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데, 항A형 간염 바이러스 면역글로불린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고, 특징적인 임상 징후를 보인다면 확진할 수 있다. A형 간염의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대부분 일관적 대중 요법으로 저절로 회복이 가능하다. A형 간염은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6~12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함으로써 95% 이상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만성 간 질환을 유발하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체액,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주사기와 바늘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해 감염된다. B형 간염 환자인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아기가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감염되는 모자간 수직 감염도 중요한 감염 경로로 알려져 있다.

B형 간염은 EIA(효소면역측정법)이라는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검사결과

음성인 사람은 B형 바이러스 면역여부에 따라 예방주사를 3회에 걸쳐 접종해야 한다. 면역이 생겼다고 안심할 수 없고 면역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면 재 추가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B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를 타인과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문신을 새기거나 합부로 침을 맞는 것도 좋지 않다.

6개월 이상 간염이 지속되는 만성 B형 간염은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 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 70% 이상 손상돼야 복수가 차고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까지 진행된다. 일단 만성 B형 간염 판정을 받으면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약 복용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아직 백신이 없는 C형 간염

C형 간염은 주로 환자의 혈액을 통해 전염된다. 전과 경로는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비위생적인 주사바늘, 면도기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급성 감염 후 자연 회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70~80%나 된다.

이 중 20~30%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만성 C형 간염 환자가 간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150배나 높다.

C형 간염 역시 다른 간염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나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 진단된다. 주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으로 진단되고 간 기능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C형 간염으로 진단한다. 정밀 검사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검사를 시행하여 지금 현재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중임을 확인해야 한다. 6개월 이상 간 기능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이고 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양성이면 만성 C형 간염으로 진단한다.

C형 간염은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에 어려움이 많다. 일상생활에서 C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형 간염 환자와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를 함께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모유 수유나 식사, 가벼운 스킨십 등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사설

군산조선소 문제 이대로 끝나야 하는가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요점이 있다. 목소리만 컸지 아무 실속이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큰 것도 전북도민 쪽을 향한 대내용이었지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밖으로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어떻게 잘 해달라는 식으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전북도가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데 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요즘 군산 조선소에 대한 말이 많은데 가뭇치 않다. 군산 조선소를 내년 2월이나 8월에 가동해야 한다는 인사들의 말이 그칠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문제를 언급하니가 현대중공업 회장인 최정호씨가 2019년에 재가동을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는 소식도 그렇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문제를 이 지경으로까지 방관한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군산 현대중공업 측에 밀려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전북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던 재부 지키기와 상반된다.

지난날 반복해 말했던 바,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은 이유를 전북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보가 예전 사실에서도 언급했거나 군산 현대조선소의 입장과 거제 대우조선의 경우는 비교가 돼야 마땅했다. 거제 대우조선은 군산 현대조선보다도 부실기업이라는 데도 막대한 공적 자금을 풀어 즉각 구제해 주었다. 군산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폐쇄와 관련해 거듭거듭 사실의 논조가 거칠었던 것은 그 이유가 명백하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제 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이를 막물어야 했다. 거제 대우조선소에 대한 해택을 형성성의 문제로 부각시켜 마땅했다는 지적이다.

폐쇄를 기정 사실화해 받아들이는 것은 도내에 많은 실업자 양산을 목인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가 적은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겠는가. 전북도는 일자리 부족 때문에 도민의 마음 고생이 심함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올때갈데 없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정부를 향해 할 말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주목한다

전북도는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주목해야겠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규모액이 자그마치 50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부 4대강 사업비가 약 22조 원대 규모였던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 그동안 많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을 감안해도 50조 원 규모의 사업은 거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의 한 해 예산이 아직 6조 원대임을 생각할 때 그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전북도더러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주목하라는 이유는 뚜렷하다. 해마다 10조원씩 풀게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9월 말경이면 지자체 공모에 들어가고, 12월이면 사업지를 선정한다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자칫 했다가는 서울시만의 잔치판이 될 수도 있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연대해 제 몫을 지켜야 하고, 도내 각 시군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500곳을 선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한해 100곳을 선정해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가 된다.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도내에 혜택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마냥 낙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이번에 전북도와 전주시는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구도심 활성화 약속과 관련해 신뢰를 받지 못했음을 잘 알 것이다. 집창촌을 새롭게 변모시키겠다던 약속만해도 그렇다. 문화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 약속을 했고 또 시일이 어느 만큼 지났으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미적거리는 게 역력했다. 그래서 본보는 지역발전전을 위해서는 보다 열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재촉한 바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포함해 다른 시군들도 욕심을 내볼 일이다. 정부가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공표했으므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한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 이번에는 힘찬 가속도를 냈으면 한다. 도시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루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주문이다.

독자제언

“피서지 몰카범죄” 함께 예방 하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국내 및 해외 여행 등 더위를 피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피서지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서지 몰카범죄’이다.

나사형, 볼펜형, 시계형, 안경형, USB형, 라이터형, 차기형 등 외형상 카메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카메라가 많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 해놓는 방법으로 범죄의 수준이 점차 전문화, 고도화 되고 있어 발견이 쉽지 않다.

‘몰카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촬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중범죄이다.

‘몰카범죄’의 특성상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서지 등 범죄 우려지역에 ‘볼펜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 피서지 등 ‘몰카범죄’ 발생 우려지역 중심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김윤철 전북경찰청장기동대3제대순경

독자제언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이 절실할 때

언론을 보면 ‘범인 잡고 보니 아들이 방화’, ‘초등학교생이 같은 반 장애 여학생 성폭행’, ‘청소년 성폭력·홍약범 무섭게 늘어난다’ 등 청소년 범죄는 단골손님인 것처럼 나온다.

실제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청소년 관련 범죄 신고는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저녁 늦게 놀이터에서 술과 담배를 하질 않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질 않나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아이들이 범죄를 안 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청소년 범죄는 집단적으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청소년 혼자 있을 땐 범죄를 잘 안 자지르다가 2명, 3명 많아질수록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재범율

도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란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치풍조와 허영을 모방하려는 호기심, 부모의 사업상 분망(分忙)함과 무관심에서 오는 욕구불만, 인간관계의 부조화에서 야기되는 사춘기(思春期) 청소년들이 받는 충동(衝動) 등이 원인이 되어 폭력, 강도, 살인, 강간 등 범죄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 빼돌려져서 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

이진재 전주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